KIA 올러·위즈덤은 팀 연패 끊기 전문…탈꼴찌 견인

SSG에 11-5 승…2연패 탈출
올러, 7이닝 중 6이닝 삼자범퇴
위즈덤은 시즌 첫 멀티홈런 생산
4연패 끝낸 지난달도 '주인공'

KIA타이거즈의 두 외국인 선수가 팀의 연패탈출을 이끌었다. 선발로 나선 아담 올러는 한 이닝을 제외하곤 모두 삼자범퇴로 막아내며 팀 승리의 디딤돌이 됐고, 중심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KBO리그 데뷔 후 첫 멀티홈런을 터뜨리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KIA는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홈 경기에서 11-5로 크게 이겼다.

최근 2연패 늪에 빠지며 최하위로 추락했던 KIA는 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7승 10패·승률 0.412를 기록, 9위로 올라섰다.

이날 승리의 일등공신은 외국인 선수인 올러와 위즈덤이었다. 올러와 위즈덤은 지난달 30일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한화전에서 5-3 역전승을 이끌며 팀의 4연패 수렁에서 건져낸 주역이기도 했다.

KIA 선발 올러는 이날 SSG 타자를 상대로 7이닝동안 2피안타 2실점(2자책) 1사사구 4탈삼진으로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7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호투를 펼쳤다.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리그 SSG 랜더스와의 홈 경기에서 KIA 타이거즈의 패트릭 위즈덤이 2점 홈런을 날리고 덕아웃에서 동료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올러는 24명의 타자를 상대로 최대 시속 154㎞의 직구(64개)와 스위퍼(19개), 체인지업(5개), 슬라이더(5개), 커브(2개)를 섞어 던지며 공략했다.

SSG 타자들은 올러의 위력적인 스위퍼와 빠른 직구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올러는 3회를 제외하곤 1회부터 7회까지 모든 SSG의 타자들을 삼자범퇴로 요리하는 수준 높은 투구를 선보였다.

올러는 1회초 외야 뜬볼과 삼진, 땅볼로 잡으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 2회초에도 뜬볼과 삼진, 땅볼로 SSG를 틀어 막았다. 3회초에는 선두 이지영을 상대로 9개의 투구 끝에 우전 2루타를 내준 뒤 현원회에게 우익수 방향 적시 2루타를 맞아 첫 실점을 허용했다. 이후 1사 3루에서 최지훈의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2실점째 했다.

올러는 4회와 5회, 6회, 7회를 삼자범퇴로 완벽하게 처리한 뒤 이날 선발 임무를 마쳤다.

타선에서는 위즈덤의 활약이 돋보였다. 위즈덤은 이날 5타수 3안타(2홈런) 3타점 3득점의 불방망이를 과시했다.

위즈덤은 0-0으로 맞선 2회말 SSG 문승원의 시속 136㎞의 슬라이더를 통타, 2점 홈런을 터뜨렸다. 4-2로 앞선 6회말에는 선두타자로 타석에 들어서 좌전안타로 출루하며 빅이닝을 만드는 역할을 했다. 8-2로 리드한 7회말에는 쐐기를 박는 중월 솔로홈런을 터뜨렸다.

위즈덤의 활약을 앞세운 KIA 타선은 이날 시즌 처음으로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며 SSG 마운드를 붕괴시켰다. 오선우는 5회말 투런 홈런을 쏘아올렸다. 지난 2023년 9월 12일 삼성과의 경기 이후 579일만의 홈런포였다. 최형우는 2회말 위즈덤의 투런포로 홈을 밟으며 KBO리그 통산 4번째 1300득점을 기록했다.

KIA 불펜진들도 힘을 내며 팀 승리를 지켰다. 올러의 바통을 이어받아 8회 마운드에 오른 전상현이 1이닝 무실점으로 막았다. 9회 마운드에 선 김대유는 볼넷 2개와 안타 1개를 내주며 1명의 타자도 막아내지 못하며 3실점 했지만, 구원 등판한 황동하가 1이닝 무실점으로 불을 껐다.

이범호 KIA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올러가 7이닝을 책임져주면서 마운드에 안정감을 줬고 위즈덤이 선제 투런홈런과 쐐기포까지 터뜨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면서 "팀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경기를 계기로 좀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KIA, 17일 KT와 홈경기서 무등산 데이

키즈클럽 20명 대상 생태관광
무등산 보호기금 기부 협약도

KIA 타이거즈는 오는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KT와의 홈경기에 무등산국립공원과 함께하는 무등산 데이를 개최하고 다양한 무등산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KIA는 지난 2023년 무등산국립공원 사무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무등산 보호 기금 기부, 무등산 환경 보호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데 이어 올해에도 연고지의 상징인 무등산과 관련된 뜻 깊은 행사를 이어간다.

경기 전 타이거즈 키즈 클럽 어린이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키즈 클럽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육과 스포츠를 접목한 '에듀-스포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무등산국립공원과 연계해 마련한 이번 프로그램은 시청각 교육의 실내 활동과 보물찾기 등의 야외 활동으로 이루어져 어린이들에게 무등산과 자연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에도 선수단 기록과 연계해 무등산 보호기금을 적립하는 '무등산 보호 기금 기부 협약식'이 진행된다. 협약을 통해 투수 네일과 윤영철이 각각 탈삼진 한 개 당 3만원, 1승 당 50만원을, 내야수 변우혁과 김도영이 각각 홈런 1개 당 30만원, 도루 1개 당 20만원을 적립하여 시즌 종료 후 무등산국립공원에 기부금을 전달한다. 지난해 KIA 선수단이 전달한 1390만원의 적립금은 평두메 습지 가꾸기 사업에 사용됐다. 이날 선수단은 푸른 숲으로 우거진 무등산을 표현한 무등산 데이 특별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민현기 기자

광주FC 3연승 실패… 강원에 0-1 패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강원FC에 일격을 당하며 3연승에 실패했다.

광주FC는 13일 강원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8라운드 강원과의 맞대결에서 0-1로 졌다.

3연승을 노렸던 광주는 이날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며 3승 4무 2패·승점 13에 머물렀다.

광주는 이날 경기에 4-4-2 포메이션으로 나섰다. 헤이스와 최경록이 투톱을 형성했다. 오후성, 박태준, 강희수, 아사니가 미드필더로 나섰다. 김진호, 안영규, 변준수, 조성권이 수비를 맡았다. 골문은 김경민이 지켰다.

광주는 전반 초반 강원의 거센 압박에 고전하며 전반 16분 만에 선제 실점을 허용했다. 광주가 수비지역에서 공을 뺏겼고, 이 공이 강원 이유현에게 전달됐다. 이유현이 바로 크로스를 올렸고, 최병찬이 골문 앞에서 헤더 슛으로 연결해 광주 골망을 갈랐다.

광주는 반격에 나섰지만 상대 골문을 열지 못했다. 전반 25분 아사니의 왼발 감아차기 슛은 골대 밖으로 향했다. 전반 30분 김진호와 전반 40분 안영규의 슈팅은 강원 골키퍼 이광연의 선방에 막혔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강희수, 안영규를 빼고 이강현, 브루노를 투입하며 변화를 줬다.

후반 6분 헤이스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강원 이광연 골키퍼에게 막혔다. 이후 볼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을 전개했지만 이렇다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광주는 후반 22분 다시 2장의 교체카드를 꺼내며 승부수를 띄웠다. 오후성, 최경록이 빠지고 가브리엘, 박인혁이 투입됐다. 하지만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면서 결국 강원 골문을 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민현기 기자

페퍼저축은행, 아시아쿼터 1순위에 '와일러'

아시아쿼터 전체 1순위 지명을 얻은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부상으로 V리그를 떠났던 와일러(사진)를 선택했다.

한국배구연맹은(KOVO) 지난 11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아시아쿼터 드래프트를 진행했다.

각 구단 별 행운의 공 10개 씩 총 70개의 공이 들어갔고, 페퍼저축은행이 1순위, 이어 한국도로공사, IBK기업은행, GS칼텍스 흥국생명, 현대건설, 정관장 순으로 결정됐다.

전체 1순위를 얻은 페퍼저축은행은 호주와 독일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장신 아웃사이드히터 스테파니 와일러를 지명했다.

와일러는 지난해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 전체 7순위로 GS칼텍스의 지명을 받았고 지난 2024-2025 시즌 GS칼텍스 소속으로 10경기에서 161득점 득점성공률 33.74%를 기록했다. 컵대회부터 서브 리시브에서 약점을 드러냈지만 수비 보다 공격에 집중하며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8일 흥국생명과의 경기 도중 우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으면서 그대로 시즌 아웃됐다. 민현기 기자

전남드래곤즈, 화성FC 2-1로 꺾고 시즌 첫 연승

호난, 알베르띠 각각 시즌 첫 골

프로축구 K리그2 전남드래곤즈가 화성FC를 꺾고 시즌 첫 연승에 성공했다.

전남드래곤즈는 지난 12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7라운드 화성FC 원정에서 2-1로 이겼다.

2연승을 달린 전남드래곤즈는 4승 2무 1패·승점 14점을 기록, 한 경기 덜 치른 서울이랜드와 인천을 제치고 2위에 위치했다.

5-2-3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선 전남은 최봉진이 골문을 지키고 구현준, 김경재, 홍석현이 백3를 형성했다. 양쪽 윙백에는 김예성과 김용환이, 중원은 알베르띠와 윤민호가 받쳤다. 정지용, 호난, 정강민이 공격진을 구성했다..

경기는 초반부터 양 팀이 공격적으로 맞붙으며 상대 골문을 위협했다. 전남은 경기 초반부터 밀어붙이며 최전방에 위치한 호난과 양쪽 측면에 배치된 정지용과 정강민이 화성 수비라인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에 화성도 도미닉과 리마를 중심으로 전남의 골문을 두드렸지만 최봉진의 선방에 막혀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전반 31분 페널티박스 앞에서 전남 정지용의 패스를 받은 호난이 박스 안에서 드리블 도중 화성 연제민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다. 심판은 노 파울 선언 후 경기를 속행했지만, 공이 나간 후 VAR을 직접 확인하고 페널티킥(PK)을 선언했다. 전반 33분 자신이 얻어낸 PK를 직접 처리한 호난은 득점으로 연결시키며 자신의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후반 36분 전남의 코너킥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을 알베르띠가 원터치로 때린 중거리슛이 골망을 흔들며 전남이 2-0으로 달아나는 골을 기록했다. 알베르띠 또한 호난과 마찬가지로 시즌 첫 골을 기록했다.

전남은 후반 추가시간 화성 보이노비치에게 실점을 허용했지만, 더 이상 추가실점 없이 1점 차 승리를 지켜냈다. 민현기 기자